

'1조 계약' 소토... 스윙 한 번에 6600만 원

MLB 뉴욕 메츠와 15년 계약
연봉 730억... 오타니 기록 넘어
5만 원권 쌓으면 2400m 높이
2년 모으면 KBO 인수도 가능

도미니카공화국 출신 야구 선수 후안 소토(26)가 세계 프로스포츠 사상 처음으로 '1조 원대 계약'을 앞두고서 많은 화제를 뿌리고 있다.



MLB닷컴 등 미국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자유계약선수(FA) 소토는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뉴욕 메츠와 15년 7억6500만 달러(약 1조955억 원) 규모 계약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액 보장 금액이고, 인센티브를 합치면 소토가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8억 달러(1조1456억 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소토는 보장 금액으로만 연평균 5100만 달러(730억 원)를 향후 15년 동안 받게 된다.

그는 지난해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가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 맺은 역대 최대 계약 규모(10년 7억 달러)를 뛰어넘었다.

일반인이라면 체감하기 어려운 수치다.

AP통신은 10일(한국시간) 소토가 얼마나 많은 돈을 받는지 2024시즌 개인 기록과 결부해 설명했다.

AP통신은 "소토는 2024년 MLB 뉴욕 양키스에서 타율 0.288, 109타점, 41홈런을



도미니카공화국 출신 야구선수 후안 소토가 뉴욕 메츠와 15년 동안 7억6500만 달러(1조955억 원) 규모의 계약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AFP=연합뉴스

했다"며 "이 기록을 계속 유지한다면 향후 15년 동안 총 17억 120만 달러(17억 원), 1타점당 46만 7890달러(7억 7000만 원),

안타 1개당 30만 7229달러(4억 4000만 원)를 받는 셈"이라고 전했다. 소토는 경기장에서 '숨만 쉬어도' 엄청난

수입을 올린다. 연평균 수입을 출전 경기 수로 나누면 한 경기당 31만 4815달러(4억 5000만 원)를 받

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아울러 한 번 방망이를 휘두를 때마다 4만 6322달러(6600만 원)가 통장으로 들어온다.

AP통신은 "이는 소토가 2024시즌처럼 향후 15년 동안 맹활약을 펼친다고 가정했을 때 받는 돈"이라며 "부상, 부진으로 출전 경기가 줄어들면 경기당 수입이나 스윙 당 수입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토의 몸값은 말 그대로 천문학적이다. 그는 15년 동안 2024시즌 성적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한 타석당 약 1억 원씩 받는다.

KBO리그 2024시즌 평균 연봉은 1억 5495만 원으로, 소토는 타석에 들어갈 때마다 국내 프로야구 선수들의 연봉에 가까운 수입을 수령하는 셈이다.

소토가 연봉을 2년 정도 모으면 KBO리그 구단을 인수할 수도 있다.

신세계그룹은 2021년 SK 와이번스를 인수할 때 1352억 원을 지불했다.

소토가 수입을 현금으로 받는 건 불가능하다.

5만 원권 100장의 두께는 약 1.1cm로 1조 955억 원을 5만 원권으로 쌓으면 약 2400m가 된다.

국내 최고층 빌딩 잠실 롯데타워(555m)의 4배가 넘고 한라산(1947m)보다 높다.

소토를 영입할 돈이면 KBO리그 5개 구단에 돔구장을 선물할 수도 있다.

국내 유일의 돔구장 고척스카이돔의 건설 비용은 1950억 원이었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K리그 세징야에드가 "내년도 파란 유니폼"

대구FC와 2025시즌 재계약



프로축구 K리그1 대구 FC가 '브라질 듀오' 세징야(35), 에드가(37)와 2025년 시즌을 함께하기로 했다.

대구 구단은 10일 "세징야와 에드가의 경험과 리더십, 탁월한 경기력에 큰 신뢰를 보내며 재계약을 통해 다음 시즌에도 함께하기로 했다"며 "두 선수는 대구의 중요한 순간마다 빛나는 활약을 보여준 주역이다. 2025시즌에도 팀의 목표 달성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발표했다.

2016년 대구 유니폼을 입은 세징야는 2024시즌 K리그1과 K2리그 승강 플레이오프(PO)를 포함해 32경기를 뛰면서 14골 8도움을 팀 내 최고 공격 포인트를 따냈다.

특히 세징야는 충남아산과의 승강 PO 2경기에서 3골을 책임지며 대구의 1부 리그 잔류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대구FC가 10일 핵심 공격수 세징야와 재계약 체결을 발표했다. 대구FC

세월 무상... 메시·호날두 '월드 11' 제외

메시, 18년 만에 명단서 빠져 음바페·홀란 등 젊은 피 점령



18년 만에 처음으로 리오넬 메시(마이애미사진)가 없는 국제프로축구선수협회(FIFpro) '월드 11' 명단이 발표됐다.

FIFpro는 올 한 해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를 포지션별로 뽑는 월드 11의 2024년 명단을 10일(한국시간) 발표했다.

70개국, 2만 8000여 명 현직 선수가 투표로 최고의 11명을 뽑았다.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무려 17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월드 11에 들었던 메시가 올해 명단엔 없었다.

메시는 '라이벌'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알나스르)와 함께 최종 후보 26인에는 들었으나 11명에 선정되지는 못했다. 호날두 역시 명단에 없었다.

새 시대의 젊은 공격수들이 공격수 세 자리를 점령했다.

레알 마드리드(스페인)의 킬리안 음바페와 비니시우스 주니오르, 그리고 맨체스

터 시티(맨시티)의 엘링 홀란이 그 주인공이다.

미드필드 4명에 올해를 끝으로 은퇴한 토니 크로스(은퇴 당시 레알 마드리드)가 이름을 올렸다.

베테랑 케빈 더브라워너와 올해 발롱도르 수상자 로드리고 디아스 멘디사(레알 마드리드)도 이름을 올렸다.

3명을 뽑은 수비진에는 다니 카르바할, 안토니오 루디게르(이상 레알 마드리드), 버

질 판데이크(리버풀)가 뽑혔고, 골키퍼로는 에데르송(맨시티)이 선정됐다.

스페인의 유로 2024(2024년 유럽축구선수권대회) 우승 주역인 FC바르셀로나 소속의 '17세 신성' 라민 야말은 최종 후보에는 들었으나 선정받지는 못했다.

지난 시즌 스페인 라리가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에서 우승한 레알 마드리드 소속 선수가 6명으로 가장 많았다.

세징야는 "더 좋은 조건들로 다른 구단의 제안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대구에서 아름답게 은퇴하고 싶다"며 "집처럼 편안하게 느껴지는 대구와 재계약을 하게 돼 너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함께 재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에드가는 2018년 대구에 입단해 강력한 제공력과 득점력으로 팀의 공격수로 활약했다.

2024시즌 6골 1도움을 작성한 에드가는 특히 세징야와 함께 좋은 호흡을 맞추며 중요한 순간마다 득점에 큰 힘을 보탤 수 있었으며, 승강 PO 2차전에서도 골맛을 보여 팬들에게 인상 깊은 활약을 보여줬다.

Volvik
CONDOR
TOUR PERFORMANCE PREMIUM URETHANE BALL